

협력을 위한 동북아 ECA협의체(Northeast Asia ECA Summit)를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5월 1일~2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회 한·중·일 수출입은행장 회의(1st Northeast Asian ECA Meeting)를 개최하였다.

3개국 수출입은행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① 제3국 프로젝트 공동진출 시 협조요구 등을 통한 금융협력, ② OECD/WTO 등에서 논의되는 수출금융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조율, ③ 프로젝트 지원 시 환경심사기법에 대한 정보교환, ④ 실무협의회,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인적교류 확대 등을 공동추진 하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제안으로 성사된 한·중·일 수출입은행장 회의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동북아 지역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수요에 대비한 역내 금융지원 및 정보교환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년도 제2차 회의는 중국수출입은행 주최로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협력실】

◆ 한국수출입은행, 우즈벡 대외경제은행과 1,000만 달러 규모 단기 수출신용 공여 양해각서 체결

5월 11일, 한국수출입은행은 우즈베키스탄 최대 국영은행인 대외경제은행(National Bank for Foreign Economic Activit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과 타시켄트의 대외경제은행 본점에서 우즈벡 재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장 리파이낸스 방식의 단기 수출신용 1,000만 달러를 공여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정부의 시장경제 지향 정책과 금, 석유, 가스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우즈벡앞 수출도

45% 이상 급증하고 있어 1992년 국교수립 이후 지속되어 온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우즈베키스탄과의 수출 계약 시 신용장거래가 여의치 않아 대부분 현금결제(T/T)방식에 의존함에 따라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수출입은행이 이번에 수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자의 원활한 수출대금 회수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보증을 받아 단기수출신용을 공여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표>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1~3월
188	247(31%)	359(45%)	128(91%)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신용장 리파이낸스

- 한국수출입은행이 개도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동 금융기관이 한국상품 수입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이 신용장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간 대출하여 주는 제도
- 신용장 리파이낸스를 이용하면 수입자는 자국내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대금을 대출받아 우리나라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수출자는 수출은행과 동시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어 자금부담 및 대금회수 위험을 경감

제품, 화학제품 등의 대 우즈벡 수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에 대하여 생사 생산설비 수출 등을 위하여 연불수출금융 등으로 1억 3,400만 달러를

지원(대출잔액 2,300만 달러)하였으며, 통신탄 현대화사업 등 3건의 경협사업에 대하여 7,700만 달러 상당의 경협기금(EDCF)을 지원하였다.

【은행전대실】

◆ JBIC, UAE의 복합 화력발전 및 담수화 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지원

지난 4월 25일 JBIC은 아랍에미리트(UAE)의 타위라 아시아 전력회사(Taweelah Asia Power Company: TAPCO)와 '타위라 B 복합 화력발전·담수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약 26억 달러 한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사업은 UAE 수도인 아부다비시 동북쪽 80km에 소재한 타위라 공업단지에서 기존의 천연가스 복합 화력발전·담수 플랜트를 개량 및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발전능력 928MW, 총 담수화능력 9,200 갤런/일을 2,000MW, 1억 6,500만 갤런/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소요금액은 약 30억 달러이다.

본 건은 국제입찰을 통해 선정된 마루베

니(丸紅), 닛키(日揮) 등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공사를 수행하는데, UAE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전력 및 용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동국의 독립담수·발전사업자(Independent Water and Power Producer) 방식¹⁾ 개발정책에 따라 미국 PTU, 독일 Siemens, 이탈리아 Fisia Italmimpianti 등도 건설에 참여하여 BOO 방식²⁾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한편, 아부다비 상수·전력청(60%)과 공사 수주자(40%)가 출자하는 Project Company를 설립하여 추진되는 본 사업은 UAE가 추진하고 있는 5번째 전력·담수화 사업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계약에 따르면

1) 자기 부담으로 발전 및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고 운영하여 생산된 전기와 용수를 판매하는 방식.
 2) 건설, 소유 및 운영(Build, Own and Operate) 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건설업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